



아기를 물어도 준다는 황새와 죽음을 의미하는 까마귀. 모든 자연이 그러하듯 탄생과 죽음은 우리의 선택영역 밖에 있습니다. 낙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이 푸른 생명의 숲을 가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www.forlife.or.kr

생명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5 교구청 별관 3층 생명위원회
TEL : 02-727-2350~3 FAX : 02-727-2355

〈생명을 위하여〉는 생명수호활동과 생명윤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은 생명위원회(Tel. 02-727-2353)로 연락주세요.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Vol. 02

2010. autumn

특집 태아생명수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2010 autumn

Vol.02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이란 무엇인가

강우일 주교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2010
—
전국 생명대회
—
기조강연 요약

인간은 하느님 창조의 결정체이자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을 잇는 대표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훼손해선 안 되는 최고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런데도 인간은 창조된 직후부터 하느님께 받은 자유와 능력을 남용해 다른 인간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악을 저질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같은 인간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닐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인간이 다른 인간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민족 지배하에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살면서 인간이 갖는 인격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처럼 인간들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지를 오랜 수난과 역경을 통해 아주 천천히 터득해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류는 아직 인간 생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성숙되지 못한 까닭에 전쟁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 생명을 훼손하고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린 생명이 어머니 태속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체와는 엄연히 독립된 생명체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 대부분의 산모나 주변 사람들, 낙태를 권장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며,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독살하고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나 사람들이 외면했던 것처럼 오늘의 낙태를 시술, 묵인, 방조하고 있는 사람들도 낙태의 진실에 대해 눈감고 깊이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08년 5월 국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인 배아를 인위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여 실험실의 재료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그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역사 발전의 대열에 설 수 있으려면, 오늘날 저질러지고 있는 인간 생명에 대한 엄청난 파괴 행위를 중단하도록 호소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 생명이 좀 더 포괄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태아나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인간 생명의 존엄함은 생명이 다 꺼져가는 마지막 상황, 질병이나 노쇠로 인해 신체적 생명력이 극도로 감퇴된 장애인이나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나 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인간 생명은 뛰어난 성적, 잘 생긴 외모, 풍요한 부, 찬란한 명예 등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최고의 존엄함을 지닌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Contents

- | | |
|---------------------|--------------------------------|
| 02 권두언 | 생명대회 기조강연 요약 / 강우일 주교 |
| 04 특집 : 생명! 오늘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윤리적 문제 / 구인회 |
| 10 생명수호의 현장 | 2010 전국 생명대회를 다녀와서 / 이득우 |
| 14 생명위원회 중점사업소개 | 제2회 청년 생명피정성, 생명, 사랑의 길 / 최봉근 |
| 18 영화 산책 | 영화 '영도다리' / 편집부 |
| 22 라디오 다시보기 | 미숙아, 이른둥이의 삶 / 편집부 |
| 26 생명윤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생명의 복음」 - 두 번째 여정 / 이동호 신부 |
| 32 생명사목 | 작은 용기가 불러온 '희망으로 가는 길' / 민수연 |
| 36 생명 관련 주요단체 연락처 | |
| 38 생명 관련 교육 및 행사안내 | |
| 39 후원안내 | |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사회 ·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윤리적 문제



I 현황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왔다. 또한 낙태를 하는 많은 여성들은 낙태가 인간 생명의 살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식있는 의사들이 불법 낙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동료의사를 고발하면서 사회쟁점이 되었다.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연구를 통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연간 34만2천 건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 수술 가운데 4.4%만이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는 불법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기혼이 58%, 미혼이 42%였으며 10대는 3.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낙태 세계1위라는 오명을 갖게 될 정도로 낙태가 만연한 원인은 과거의 산아제한 제도, 피임법에 대한 무지, 생명경시



구인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풍조, 남아선호 사상, 성의 개방, 퇴폐문화 확산, 청소년 문제, 자녀양육의 부담으로부터 기피 등을 꼽을 수 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낙태를 크게 죄악시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무분별한 성문화가 지배하면서 낙태를 원치 않은 임신의 중단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낙태의 주된 원인으로는 잘못된 피임 및 성교육, 책임있는 성의식의 결핍을 들기도 하고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의 영향도 그 배경이 된다. 자녀양육이 힘든 사회 경제적 여건과 함께 낙태 기술을 해야만 병원 경영이 유지되는 산부인과의 열악한 환경 또한 원인으로 제시된다.

II 낙태허용론을 주장하는 입장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는 타협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다. 낙태 금지를 고수하는 교회 입장은 과연 법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비현실적 독단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낙태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근거는 무엇인가.

낙태에 대한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여성계는 낙태 반대를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낙태 허용 범위는 산모의 건강 등 의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산 뒤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은 고려않고 출산만 강요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만 보는 것이며, 정부는 무료 낙태서비스와 낙태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또한 낙태를 강력히 금지한다고 해도, 사회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낙태는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초기에 낙태를 하면 안전할 수 있는데, 낙태 단속으로 늦어지면 영아 살해, 원정낙태 등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 주장하며, 성교육이나 성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는 사회에서 낙태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하든지 현실성 있는 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신한 미성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불법 낙태는 불가피하며, 이를 막을 경우 자살이나 유아유기 등 충격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임신한 미성년이 학업과 진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낙태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아 후유증이 없도록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현실을 모르

는 무책임하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Ⅲ 윤리적 검토

사회·경제적 이유에서의 낙태는 원하지 않은 임신, 터울조절, 아기를 키울 경제력의 부재, 육아 부담,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미혼 임신, 미성년의 임신, 불륜에 의한 혼외 임신, 강간·준강간, 혈족·인척간 임신 등 거의 모든 낙태가 포함된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선 엄격한 낙태법은 낙태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어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도 수용해야 하며, 심지어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라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할 경우 사유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허용된다면 결국 모든 낙태가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임신부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낙태를 생각하는 사회라면 그런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무고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는 태아를 살해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임신부는 아기의 생명을 어떤 권리로 어떤 근거로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인가? 원하지 않은 임신이고, 지금 태어나면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기가 불행해질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인가? 여성계에서 주장하듯이 낙태 반대는 여성에 대한 공격인가?

낙태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며 여성들은 낙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여성들은 낙태 후 심리적 신체적 무력감을 경험하며, 낙태 수술 시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 충격은 대단히 크다. 그런데 낙태를 요구한 사람도 시술하는 의사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제 낙태라는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낙태는 자신의 자식,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내 몸속의 아기, 무고하고 무방비 상태의 아기를 살해하는 일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하려는 여성들에게 태아가 온전한 인간 생명임을 알리고, 낙태 수술이 어떤 것인지,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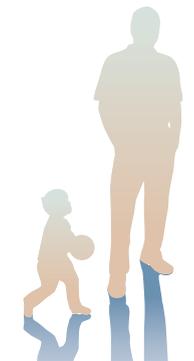
둘째, 세속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나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의 희생도 마다 않는 각박한 사회적 분위기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서 두드러진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선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낙

태를 방조하고 있다.

셋째,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계획할 권리를 갖고 있기에 낙태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율성이 보다 중요한 생명권과 충돌될 경우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대로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여성의 행복이 보장되는가? 오히려 낙태를 통해 여성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후유증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생명권은 물론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아기를 낳을 권리도 있다.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와 원하는 시기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부 마음대로 이미 잉태되어 존재하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넷째,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겪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아를 살해함으로써 기회균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고한 약자인 태아에 대해 보다 큰 불평등, 보다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여성들이 낙태하는 것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태아가 산모를 죽이는 위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아마 극히 드문 특수한 의학적 상황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태아를 포기하고 죽이는 것이 마치 임신부의 삶을 구하는 길이며, 행복을 지키는 일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임신부와 태아는 결코 서로의 생명을 두고 다투는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어머니와 아기인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자연스런 본능적 사랑이 있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는 적대감이나 살의가 있을 리는 없다. 낙태에 관한 고려는 아이에게는 생사의 문제이고, 임신부에게는 삶의 질의 문제이다. 생사와 직결되지 않은 여성의 낙태 이유가 결코 태아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여섯째, 일정한 시기 이전의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므로 낙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인간 생명체이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수정 시점부터 바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로 인정, 존중하고 있다.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그 이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출생 직전 아이와 출생 이후 아이를 무슨 근거로 구분해서 어느 쪽은 죽여도 되고 어느 쪽은 죽일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일곱째,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미성년의 임신인 경우에 낙태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처럼 한 인간의 범죄행위로 인해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는 결

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불행한 환경에서 낳아 불행하게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애초에 없애는 편이 낫다는 주장은 전혀 그를 수도 있다. 결국 태어난 아이가 훗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아이의 행복이 결정될 것이다. 출산 환경에 따라 아기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낙태를 한다면 태어나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IV

낙태문제 해결 방안

최근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해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낙태를 고려하는 사회적 환경조건을 변화시켜야 하지 그렇지 않아도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고 낙태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이유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지 않는다.

임산부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 해결책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경제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나 여성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

제를 피해간다면, 사회·경제적 문제가 낙태를 야기하는 풍토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낙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낙태는 하나의 고유한 인간 생명의 살해임을 알려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감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이지만, 온갖 그럴듯한 핑계를 앞세워 결국 낙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낙태 예방 홍보와 교육, 출산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낙태를 통해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태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존엄성을 지니는 실존하는 인간 개체임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출산환경을 개선해 낙태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을 물론이고, 육아의 책임 등에 대해 여성 홀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물적 심적 양면으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주부의 임신은 물론, 사회적 이목과 편견 속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수 있는 미혼부모, 독신자,

청소년들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임신이 곧 학습 중단을 야기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청소년과 태아 모두를 구하고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예비부부들을 위한 출산조절 교육, 임신부 배려와 육아 분위기 조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





2010년 7월 10일, **밤새 설렘 속에 여명을 지나
산뜻한 햇살이 따스하게 펼쳐지던 날!**



꽃동네를 향하여

서울교구의 1박2일 참가자들은 명동대성당 앞 가톨릭회관 후문에서 관광버스로 출발(13:00)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생명위원회 행사담당자가 서울교구 참가자 단체 이동시에 인원점검 등 안내봉사를 요청하셔서, 솔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늘 봉사 협조에 익숙하신 교우 분들께서는 미숙한 안내에도 시종 수월하였음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이윽고 꽃동네 도착, 진입부터 “얼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애절한 한 마디의 명언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몇 번이고 되뇌어 보게 되는 걸인 왕 최귀동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 체험으로 절감해 온 그 걸인 왕, 열심히 구걸해서 본인은 아랑곳없이 움막에 웅크려진 절박한 걸인들(18)에게 식음을 나눠 함께 연명하셨다는 사연, 꽃동네 터전에 또 하나의 새싹을 이룬 효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스물 석자(23), 공교롭게도 여성적인 최초의 숫자와 남성적인 최초의 숫자의 표양, 이에 특히 그를 찾으셨고 승화시키시어 오늘의 꽃동네가 있게 해주신 오웅진 신부님을 기억하며, 사랑의 새싹! 생명의 귀함! 생명의 수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좋은 계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만인의 공감·동참활동의 불을 붙여나아가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게 된 행사일정(3일)은 첫날, 생명운동 성찰의 날(생명포럼). 둘째날, 생명운동 연대의 날. 셋째날, 생명운동 다짐의 날

로 이어졌고, 교구별 단체 동참은 둘째·셋째날(1박2일) 참가였습니다.

생명운동 연대의 날

이날 특히 생명의 밤 행사는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위원장이신 장봉훈 주교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말씀의 전례로부터 묵주기도와 촛불행렬에 이르기까지 시종 장엄한 시간이었습니다. 양엽밴드, 북 공연, 한국무용, 영상물, 피아니스트 희아, 젊은이 퍼포먼스, 엔젤루스도미니 합창단, 나무자전거 공연이 있었으며, 이어 주교님께서 각 교구 대표에게 촛불점화, 생명선서문 봉독, 생명수호 묵주기도로 빛의 신비 5단을 봉헌하며 행렬지어 태아동산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은 참으로 신비로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생명대회비 제막과 더불어 꽃동네 밤하늘에 장엄하게 울려 퍼진 생명의 수호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제창, 마침기도, 파견강복, 촛불봉헌에 이어 태아동산 불꽃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를 뒤흔들며 수많은 형형색색의 불꽃, 어찌면 수많은 낙태아, 수많은 생명들의 무한한 희망의 표출이고 절규이기도 한양, 보는 내내 환호와 숙연함이 교차하곤 했습니다.

마무리 친교의 시간은 시원한 동동주, 파전, 풋고추, 도토리묵 등 등 푸짐한 무공해 음주성찬에 교구별·지역별 만남 인사와 상호 다짐을 나누는 뜻 깊은 인연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 폐막미사때 염수정 주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연대의 날 축하공연 - 양엽밴드 3. 연대의 날 축하공연 - 네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4. 연대의 날 축하공연 - 한국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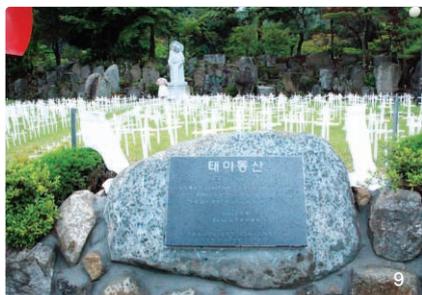
생명운동 다짐의 날

이른 아침 신선한 산책, 명상, 아침기도 등 모두가 상쾌하게 파견 미사의 날을 맞았습니다. 공연이 중간 중간 배정되어 분위기가 고조에 아주 효과적이었지요. 거기에 미혼모 문제에 관한 현장의 소리,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근절운동, 그리고 교회기관들의 강의에 이어 주교님 주례로 봉헌된 파견미사의 특별한 봉헌 레지오 마리아; 묵주기도 봉헌, 여성연합회; 촛불과 함께 예물봉헌, 평협; 생명 나눔 봉헌, 준비위원회; 생명운동 지침서(안) 봉정 등이 파노라마

처럼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라이프 청년회 발대 및 축복, 태아 발배지 달아주기, 생명수호결의 선언문 낭독, 교황님 메시지, 격려사, 축사와 인사말씀, 특히 2010 전국생명대회 결의문으로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를 참석자 일동으로 6개항 낭독 등 이 모두가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회의 소중한 주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기획·주선해 주시고 진행, 봉사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생명수호담당자의 다짐

2010 전국생명대회 참가 기회를 주시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회참가는 본당 생명수호담당자로 봉사하는 저에게 많은 감동과 생각, 결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2010 전국생명대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사회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대회 환영사에서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생명경시풍조가 도를 넘어섰고, OECD국가 중 낙태율·자살율은 세계 최상위이며,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매일 1,000여 건의 낙태가 지속되고 있고, 매일 38명이 자살하고 있음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풍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생명문화 건설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태아보호, 장기기증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는 ‘죽이고 없애는’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돌보는’ 사랑과 생명의 문화가 꽃피는 사회입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신 해에 그 분을 따라 각막기증에 서명했고, 뇌사 시 장기기증도 서약했습니다. 이제 본당생명수호 담당자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아가리라 스스로 다짐합니다. 본당에서 동시 추천·선정된 세 분(함영선 켈투르다, 김영애 소사세실리아, 김주현 도미니코)과 더불어 소임에 성실히 노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즉 ① 본당 내 생명위원회 신설 건의 ② 낙태근절운동 ③ 장기기증 운동 ④ 교구 생명위원회 각급교육 적극참여 ⑤ 교구 생명위원회 각종행사 참여 ⑥ 예비자 교리과정에 적용 확대 ⑦ 기타 청소년 단체별 자료보급 등을 우선 과제로 생각해 봅니다.

1975년 영세 이후, 각 봉사활동에 임해 오면서 이처럼 절실한 느낌은 처음! 그동안 하상회 회장, 독서단원, 사회사목분과위원장, 기획홍보분과위원장, 엘리사벳장학회장(현), 성찬봉사단원(현) 등에 임해 왔지만, 이번 대회에서 처음 생명수호문제의 현실을 살펴봤고, 그에 대한 대안추구의 과제 등을 접하면서 지난날 이처럼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본당생명수호담당자로 전국생명대회에 참여했던 바로 제가 먼저, 지난날의 봉사활동 경륜을 쏟아 실천함으로써 대회 기간 중 생명의 밤 행사 때 있었던 생명선서문대로 생명문화운동의 빛을 무한히 밝혀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의 생애 공교롭게도 저에게 주어진 이름(李, 얻을得, 비雨)에서 시사 하는 대로 ‘만민에게 생명의 근원인 단비를 얻게 하려는 소신’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금번 대회에서 받은 주님 은총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



이득우 (프란치스코) 명동대성당 생명수호담당자

5. 생명수호 묵주기도 전 정병훈 주교가 각 교구대표에게 촛불점화를 하고 있다. 6. 폐막미사 전경 7. 다동이 가족에게 축복을 주고 있다. 8. 참가자끼리 서로 촛불을 나누고 있다. 9. 태이동산 전경 10. 폐막미사 때 과달루페 성모상을 들고 사제단이 입장하고 있다.

제2회 청년 생명피정



최봉근
디도 선교사(ICPE 선교회)

얼마 전 한 대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면서 조언을 청한 적이 있다. 다행히 그 딸도 내게 찾아와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자 하였다. 나는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어머니가 성에 대한 자매의 개방적인 태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물어 보았다. 답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답이었으면서도 자신의 고민도 함께 섞여 나왔다. 성이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번째 응답이었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사귀면 얼마 안 되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 성관계를 해보지 않아서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아직도..." 라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는 것이다. 게다가 친구들에 의하면 요즘 남자들은 경험이 많은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결혼해서 성을 즐기려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매는 음악을 하는데 성 경험이 있어야 음악도 더 성숙해 질 수 있다는 말도 듣고 해서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사회에서 말하는 성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내가 상담한 그 자매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성에 대한 문제는 큰 숙제일 것이다. 성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성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고, 그 얻은 지식은 참된 것인가? 때때로 동료들로부터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우리들 : 제2회 청년생명피정(2009.11.14~15)



1



2



3

1. 강의 전 몸풀기
2. 열음장 깨기
3. 강사 : 최봉근 디도선교사 / ICPE 선교회

이 피정을 통해 청년들이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을 도와주고자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생명의 복음 97항에서 “만약 성, 사랑,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을 이해하고 표현

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고, 또 사랑의 의미와 사회의 질서, 심지어 우주의 질서까지 알게 해 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의 왜곡, 성적 문란과 타락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타락, 성병 문제 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관하여 생각하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성적인 결합은 인간의 “사랑의 질서”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성의 왜곡과 타락은 바로 그들의 삶에서 사랑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소멸시킬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고 소멸시킨다. 또한 성은 실제로는 사랑과 성의 열매인 생명과 연관이 되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도

압력 내지는 자신이 왕따 되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 할 것인가? 왜 교회는 성에 대해 폐쇄적이며 결혼, 피임, 낙태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문은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톨릭 청년들이 직면하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속의 성문화, 그에 비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의한 참된 성문화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성에 대한 고민과 성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피정을 마련했다.

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고, 또 사랑의 의미와 사회의 질서, 심지어 우주의 질서까지 알게 해 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의 왜곡, 성적 문란과 타락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타락, 성병 문제 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관하여 생각하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성적인 결합은 인간의 “사랑의 질서”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성의 왜곡과 타락은 바로 그들의 삶에서 사랑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소멸시킬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고 소멸시킨다. 또한 성은 실제로는 사랑과 성의 열매인 생명과 연관이 되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도

연관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회 청년 생명피정(성, 생명, 사랑의 길)의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루고, 둘째 날에는 성의 의미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몸의 신학을 토대로 깊이 보며, 마지막 셋째 날에는 세속의 영향 때문에 너무도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피임과 낙태 등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첫째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이유는 바로 성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이는 것, 하나님이 '사랑' 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성을 참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저 도달 할 수 없는 이상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첫째날은 이 피정의 핵심이며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날이다.

둘째 날은 먼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이해 내지는 생각의 체계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전개하시는 몸의 신학을 통해 성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이해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곧 몸이 지닌 의미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각자가 부르심 받은 성소에서 (결혼이든 봉헌된 독신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성의 의미, 생명을 낳는 사랑의 근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둘째 날은 어떻게 교회가 성, 사랑, 생명을 이해하는지를 듣게 되어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성, 사랑, 생명에 대한 개념과 신념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은 성과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생명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왜 교회는 세속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지를 알게 한다.

피정은 단지 강의만을 듣고 알고 깨닫는 시간을 넘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나눔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전례적인 시간을 통해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삶에 녹아 들어 가게 한다. 특히 첫째 날의 전례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상을 제거함으로써 인해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이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며, 그와 연관되어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닫게 한다. 둘째 날의 전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왜곡된 성을 정화시키고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 새로워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준비되었다. 물론 화해성사는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기에 필수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셋째 날은 미사를 통해 파견됨으로써 피정을 통해 체험하고 얻은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눌 자세를 갖게 해 줄 것이다. 또 피정 동안 부르게 되는 찬양과 마미는 피정 내용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배우고 부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피정을 통해서 피정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성과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아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우선 자신의 삶에서부터 생명의 문화를 실천하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 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한다. ♥

M o v i e

여기도다리



우리는 모두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귀중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난 분명 축복받아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은 축하 인사보다는 한숨소리와 위로를 듣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산모가 10대 미혼모일 경우 아기는 입양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영화 <여기도다리>는 이런 우리나라 10대 미혼모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살고 있는 19세 인화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출산 후 곧바로 아기를 입양 보낸다. 아무렇지 않게 평소생활로 복귀하려 하지만 출산 후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를 느끼며 모질게 떠나보낸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한다. 결국 인화는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인화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폭력과 죽음, 무관심이 혼재해 있다. 영화에서 다루어진 원조고제, 자녀학대, 현금 갈취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전수일 감독은 억지로 감동을 만들기보다는 이러한 진실에 주목하기 위해 주변의 폭력, 죽음, 무관심을 마치 옆에서 관찰하는 듯 한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를 보면서

M O V I E

냉혹하고 거칠다는 느낌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반응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그것은 물질이나 가식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 관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당연하고도 옳은 것이다. 또한 산모는 열달 동안 아이와 교감하기 때문에 입양 보낸 아이를 평생 잊지 못한다. 아이를 찾겠다는 인화의 굳은 의지는 그녀의 행동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기를 돌려달라며 강하게 요구하는 인화에게 입양센터 직원은 서슴없이 욕과 폭력을 행사하며 무시한다. 이것은 우리가 미혼모를 바라보는 한 단면일 것이라.

우리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입양을 보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해도 이를 지지해주는 커녕 일부는 부모나 친척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주변의 눈총을 받는다. 대부분은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직장을 잡기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주위에 미혼모가 발생하면 아이를 양육보다 입양 보내는 길을 쉽게 권유한다.

그러나 미혼모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



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전처럼 먹고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로 입양 보내지는 아이들은 연간 2천 명 정도이며 그 중 90% 이상이 10대 미혼모의 아이들이라고 한다. 중국에 이어 고아수출국 2위라는 한국의 부끄러운 현실은 여전히 외면되고 감춰져 있다.

미혼모에 대해 생각 없이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우선하며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서 누구나

평화롭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실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들 중에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부모는 누구보다도 그의 아이를 이해하고 잘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미혼부모의 임신과 출산 후에, 입양이나 양육의 두 갈래 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선물이다. 책임을 다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 제18차 정기 학술 세미나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와 가톨릭교회의 역할

2010. 9. 30(목) 오후 7시 ~ 9시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좌장 : 박정우 신부(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1부. 주제발표 : “우리나라의 미혼모 실태와 정부의 정책방향”
-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부. 사례발표 : 가톨릭교회 내 미혼모 지원사업
- 강수에 필립보 수녀(예수회 꽃동네 자매회)
- 다연엄마

문의 생명위원회 ☎ 02.727.2351 www.forlife.or.kr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학술연구위원회



미숙아, 이른둥이의 삶

〈생명은 사랑입니다〉

평화방송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공동제작 프로그램
web.pbc.co.kr/RADIO/782

주일 오전 11시, 평화방송 라디오의 〈생명은 사랑입니다〉에서
는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에는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의 김기수 교수님이 나오셔서
1kg도 채 되지 않는 몸으로 생명을 향해 치열한 몸부림을 하
고 있는 미숙아, 이른둥이에 대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진행: 지영현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부국장)

출연: 김기수 교수(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신생아과)

Q. 신생아과는 어떤 곳이며 신생아와 미숙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신생아과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은
총 40병상에 교수 포함한 의료진 14명, 간호사가 70명입니다. 1년
에 650명 정도의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 중에 받은 미숙
아이며, 나머지 중 1/3은 기형, 2/3는 질환을 치료합니다. 미숙아는
보통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체중2.5kg 미만의 저체중아(신
생아 평균은 3.4kg)를 말합니다. 미숙아중 2.3kg 이상은 별 문제가
없는 편이며, 1.5kg미만을 극소저출생체중아, 1kg미만을 초극소저
출생체중아, 600g미만이면 초 미숙아라고 부릅니다.

Q. 갈수록 미숙아출산율이 증가한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A. 10년 전 출산률은 100만 명이었는데 요즘은 43만 명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 미숙아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미숙
아출산율이 2000년에 100명 분만 시 4명 꼴이었는데 근래에는 5명
수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령산모가 늘고 불임시술증가로
쌍둥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쌍둥이의 경우 조산 가능성
이 높습니다.

Q. 미숙아의 경우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20년 전만 하더라도 신생아 집중치료가 발전하지 못해 생존율
이 높지 않거나 살더라도 후유장애 확률이 높았으나, 이제 우리나
라는 미국을 능가하며,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인 일본수준에도 육박
한다고 합니다. 1kg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95%정도 살아나며 그중
90%의 아이들은 정상으로 자랍니다. 태내에는 영양분, 호흡 등이
일정하고 균에 대한 감염이 없으며, 아기는 열달 이후에 몸의 기능

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느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5~7개월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썩우고 고영양주사도 주입합니다. 때로는 뇌출혈이나 뇌성마비가 올 수 있으며, 만성폐질환 등이 미숙아의 합병증이 됩니다. 후유장애를 줄이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목표이지만 우리는 옆에서 도울 뿐인 것 같습니다. 어른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100%의 산소를 쓰면 2주 후에는 거의 사망하지만 신생아의 경우 이것을 한 달 이상 썩어도 잘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Q.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상황도 많을 것 같습니다.

A. 병실이 일반병실보다 비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10년 전부터 국가지원도 늘고 지원단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kg의 아이는 평균 두 세달 정도를 입원해야 하는데 입원기간이 3달이 넘어가면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가 나옵니다. 그중 천만원만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정상적으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비보험 부분(입원기간 장기화, 수술비)이 커 짧은 엄마야빠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미숙아지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사회복지사분들과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미숙아의 경우 치료를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없으리라는 편견도 있지 않나요?

A. 요즘은 아이를 하나만 낳기 때문에 아이가 1등만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능저하, 기형, 뇌성마비 등을 우려해 하나 더 낳고 이 아기는 없었던 일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의료진도 그런 인식을 돌려놓으려 노력합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 학대, 방임할 확률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외국에 비해 아기에 대한 사랑이 많고 굳건해 대부분 소외시키지 않고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

Q. 병원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신생집중치료실이 부족해서 산모와 미숙아들이 전국을 헤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A. 미국의 경우 20%를 비워놓고 있어 미숙아 발생 시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수요보다 20% 모자랍니다. 대전에서 아기를 출생하고 아기의 눈 수술을 위해 서울로 온 한 보호자는 집은 부산인데 신생아 집중치료실 여유가 없어서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결국 대전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유동성이 큰 편이지만 항상 최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적자를 대부분 병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부분은 무료이고 국고로 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등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정부지원으로 각 지방 8개소에 집중치료실을 10병상씩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3~4년 후에는 병상이 모자라 힘들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집중치료 후 건강해진 아이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A.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도 기억에 남습니다만, 24주 만에 500g로 나와서 여러 가지 장애와 궤혈증으로 고통 받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뇌의 1/3은 손상된 상태였죠. 심각한 중증장애가 남을 거라 예상되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는 독실한 신자였는데 후유장애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치료해 달라며,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다음날부터 아이가 전체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여 집으로 퇴원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예측대로 온몸이 뻣뻣하고 중증장애를 지니게 되었지만, 통원치료 중에도 보호자는 아이를 살려주고 우리가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후유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며, 부모가 아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들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아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았던 아기들의 모임(20년간 집중치료실을 거쳐 간 아기들의 모임)'의 아이들은 다들 주사자국, 수술자국을 훈장처럼 가지고 있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잘 자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Q. 지난 2006년에는 국내 최초로 선천성 심장기형 미숙아의 심장수술에 성공하셨죠?

A. 네.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은 대동맥과 폐동맥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로 3kg이 넘는 아이도 100바를 이상 껴매야 하는 대수술입니다. 1.7kg의 아기는 심장이 자두나 딸기 정도의 크기이며 대동맥, 폐동맥은 성냥개비 정도의 크기입니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Q. 이외에도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A. 미숙아 치료의 발전은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에 의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병원 내에 계속 적자부서로 남아있었지만 앞으로는 인력도 늘어나고 쾌적하고 여유 있는 진료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치료가 있는데 보험규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 최상의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아 진료는 생명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회칙 『생명의 복음』 - 두번째 여정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주시는 가르침



이동호 신부
가톨릭대 윤리신학교수
가톨릭교리신학원 부원장

“범죄율을 낮추려면 모든 흑인 아기들을 낙태시키면 된다.” 국내 언론에서 본 글입니다만, 미국 보수파 팻 로버트슨, 그것도 목사님이신 분이 하신 주장입니다. ‘괴짜경제학’의 스티븐 레빗은 아예 이것을 사회 통계로 증명했습니다. 1973년 초 합법화된 낙태로 인해 10여년 후에 범죄를 저지른 흑인 불량 청소년의 탄생이 확 줄었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물론 가난하거나 원치 않는 그래서 준비 안 된 출산으로 사회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녀를 키워낼 가능성은 더 적을 수 있겠지요.

이어지는 다음의 세 가정의 사례를 보시지요. ① 10대 소녀가 임신 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아이 아빠가 아닙니다. ② 세 아이가 있는 가족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시각장애아, 둘째는 청각장애아, 셋째는 결핵환자입니다. 엄마 역시 결핵환자인데 넷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③ 몹시 가난하게 사는 가족이 있는데 아이가 열넷입니다. 엄마는 15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낙태를 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낙태를 권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

인지나 아십니까?

낙태울처럼,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매일 35명이 자살해 12,858명이 운명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배가 넘는, ‘부동의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더 우울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중 1위가 2008년부터는 자살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는데,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신’ (마태 10,30)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더 슬프실까? 또 전 세계 뉴스와 통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교황님의 ‘가슴’은 얼마나 참담하실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해 주시는 회칙,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百聞不如一見) 하니, 이제 직접 제1장과 제2장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장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

1. 문제의식의 출발: 죽음의 문화 출현

‘우리시대의 인간 생명의 위협’에 대해 1991년 4월 4-7일 로마의 특별추기경회의가 의제로 다루면서 회칙으로 반포할 필요성을 서론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5항).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먼저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적 현상들의 밑뿌리를 진단하시는데, 바로 ‘죽음의 문화’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2. ‘죽음의 문화’의 정체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경제·정치에 의해 조성되며, 개인·가족·집단·민족·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생명에 대한 음모’ (12항)가 거대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악을 혼동하게 하고 죄의 구조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24항) 선은 악을 이길 수 없다는 완전한 무력감에 현대인들을 압도해버립니다(29항).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밑뿌리는 바로 인류의 ‘첫 살인 사건’입니다. 하느님 본성을 닮아 ‘불멸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악마의 시기’와 ‘원죄의 결과’들이 폭력으로 인간의 죽음(지혜2,23-24 참조)을 세상에 불러들였던 것입니다(7항).

3.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발견되는 희망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분노와 시기’로 인해 살해 충동에 취해있는 가운데서도 ‘관계 단절’을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양심’은 ‘화가 나면’ 날수록 ‘죄에

다 굴레를 씌우도록’ (창세 4,7) 그리고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창세 4,9 참조) 초대받고(8,9항) 또 그럴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의 ‘표’ (창세 4,15)를 통해, 하느님께서도 심지어 가정 내의 살인자’에게도 ‘살인이 또 다른 살인행위를 통해서 처벌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9항). 그리고 그 대가와 보상은 철저히 약속하십니다.

4. ‘분노와 시기의 형태들’의 공격

분노와 시기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지만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태만으로 더욱 심하게 악화됩니다.’ 살인, 전쟁, 집단학살, 민족말살 등과 같이 ‘드러나는 공격’과 어린 생명에 대한 폭력, 계층 간의 자원 분배에서 가난, 영양실조, 기아 발생, 추악한 무기매매, 생태계 파괴, 마약, 위험한 성폭행 등의 ‘은밀한 공격’이 그것입니다(10항).

5. ‘또 다른 범주’의 공격들

바로 우리 시대의 문화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첫째, 낙태와 안락사 등의 ‘범죄’를 시민적인 ‘권리’로 둔갑시키는 합법화와 그리고 보건의료계의 무료봉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심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의학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11항).

셋째, 피임과 불임수술을 국가차원에서 권장함으로 ‘부부행위의 성실성’과 ‘책임있는 부모 역할’의 훈련을 처음부터 방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피임이라는 이름으로 ‘손쉬운 낙태’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13항).

다섯째, ‘예비수정란’ 생산과 ‘잉여수정란’ 폐기 및 실험실에서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 재료’로 전락시키는 ‘인공생식기술’과, 그리고 ‘우생학적 낙태’의 정당성으로 남용되는 ‘태아진단기술’이 생명 봉사를 위한 ‘치료적 개입’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질병과 장애를 가진 아기에게 수유 거부와 영아살해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14항).

게다가, 일곱째, ‘고통의 해결’을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겨줌으로써, 그리고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고통의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만적인 인식’이 ‘안락사의 합법화’나 이식용 장기의 활용을 위한 기증자의 ‘죽음 판정’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것입니다(15항).

여덟째, ‘인구 문제’ 해결에서도 가정·사회 정책과 자원의 정당한 생산분배를 위한 국제적 중재보다는 ‘인구폭발’이란 두려움을 이용해 ‘출산억제정책’에 끌몰하는 것입니다. 경제지원의 조건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피임, 불임기술, 낙태 등으로 ‘출산 조절’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바로 ‘늙은 파라오’ 권력자가 이스라엘 약자의 남아들에 대해 내린 살해 명령(탈출 1,7-22)을 떠올리게 합니다(16항).

아홉째, 국제적인 기구들까지 연대 의식이라는 미명하에 ‘생명에 대한 음모’로서 피임, 불임기술, 낙태들이 가담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매스 미디어는 ‘안락사’ 허용이야말로 ‘진보와 자유의 승리’라고 추켜세우는 것입니다(17항). 선진 민주 시민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6. ‘진리’와 분리된 ‘자유’ (자율성)와 그런 ‘인권’의 패악성

‘인권’은 ‘모든 개인들이 본래적으로 지닌 권리이며 어떤 헌법과 국가의 법령보다 앞서는 권리들’인데(18항), 진리와 분리된 자

유와 인권은 ‘언어적이고 명시적인, 적어도 인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그 바탕을 두게 됩니다(19항).

그 결과, 인권이 발달한 나라, 소위 ‘선진국’에서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약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 노인, 신생아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모순이 일어납니다(18항). 자유(자율성)와 존엄성은 사회적 ‘강자’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립니다(19항). 비록 민주적 절차와 투표 결과라도 낙태와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국가는 ‘공동의 가정’에서 ‘전제 군주국’로 돌변하는 것입니다(20항).

하지만 상대주의로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의회의 표결에서 또는 일부 ‘힘’ 있는 국민의 결정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은 바로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성’과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생명권’에 관한 진리입니다(20항).

7. ‘생명의 문화’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의식들

첫째, ‘하느님에 대한 의식’과 ‘인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21항). 왜냐하면 인간 자신은 완전히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한 유기체인 ‘사물’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탄생과 죽음은 ‘살아내야 할 최우선적인 체험’이지 ‘소유’하거나 ‘거부’할 대상이 아니며 ‘조작’과 ‘개입’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22항). 소위 ‘삶의 질’ 속에서는 생명을 경제적 효율성, 무절제한 소비주의, 육체적 미와 쾌락으로 평가하지 만(23항), ‘하느님을 잊어버린다면 피조물 자체의 정체도 어두워지고 마는’ (사목헌장, 36항) 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인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십자가 상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요한 19,34) 것으로서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네 아우의 피’ (창세 4,10)보다 ‘더 큰 힘을 발

회하는 새로운 중재자'(히브 12,24)의 그것입니다. 인간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마태 26,28) 것입니다. '죽음의 승리와 그 독침'(1코린 15,55)을 추방해 버리셨습니다(25항).

셋째, '인간의 소명의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피흘림을 통해서 '자신을 진실로 내어주는' 소명을 계시해주신 것입니다(25항).

8. '궁정적인 표징들'의 출현

아직 미소하지만, 생명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부 '궁정적인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로 간주하는 많은 부부들, 버려진 아이나 어려운 심대를 돌보는 가정들과 생명후원센터들, 그리고 가족 없는 이를 돕는 자원봉사단체들이 그것입니다(27항).

둘째, 의학 발전도 태아와 급성·말기 환자의 치료법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전쟁과 자연재해 주민들의 치료를 위해 국제차원의 의사협회들의 활동도 보입니다(27항).

셋째, 낙태허용반대를 위한 생명수호운동이 전개되고 남녀수도 자들이 새로운 형태로 생명에 봉사하며, 전쟁반대의 의식과 '정당 방위'라는 사형제도 반대의 의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생명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인 윤리적 반성을 하는 '생명윤리학'(bioethics)의 과목도 생겨난 것입니다.

제1장을 마감하시며,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축주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명 30,19).

제2장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1요한 1,1)이신 그리스도의 언행과 인격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30항), 구분은 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일체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 실천인 것입니다.

첫째, '선포의 목적'이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요한 1,3) 것입니다.

둘째, '생명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탈출기에서의 개입(31항), '소경-절름발이나 병-죽은 이에게 개입하시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게'(루카 7,22 참조)하시는 '연민'을 통해, 생명의 선성(善性)을 계시해주십니다(32항).

셋째, '생명은 선물 자체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숨결과 닦음'으로 특별한 유대 속에 창조되어 세상에 '선사된' 것입니다. 성 이레네오는 고백합니다. "인간, 즉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34항).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준귀의 관을 씌워주신'(시편 8,6) 인간 생명인 것입니다(35항).

넷째,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량' 활동입니다. 이미 '탄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예'라는 동의, 요셉의 '그에 대한 순명, 머무를 여관방도 없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마태 2,13)했기에 이집트로 피난 가서 이주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에 죽기까지 순명'(필립 2,8-9)하심으로써 '죽음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35항).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한 17,3)이기에(37항), '새로운 탄생'이 필요합니다(36항). 마침내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1요한 3,2) 것입니다(38항).

여섯째, '생명 훼손에 대한 대가'입니다(38항). 신구약에서 육체적 처벌과 사형은 오히려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40항).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양값음을 하리라.'(창세 9,5).

일곱째, 전체 생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약자, 이방인, 외국인을 보호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이유(41항)나 세상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창세 1,28 참조), 그리고 '여기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창세 2,17)는 자연 생태계에 관한 '금령'(42항)도 생명에 대한 책임성 때문입니다.

여덟째, 생명 창조에 '혼인을 통한 참여'입니다. '혼자'와 '적합한 협력자'가 '한 몸'으로 결합해 '번성'할 생명(창세 2장)에 봉사·참여하는 것입니다(43항).

아홉째, 생명의 시작부터 임종까지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불임'이 '무서운 저주'라는 점(44항), 요한과 예수님 두 아기의 만남(45항), 노년의 존경과 임종 그리고 와병 때도 하느님을 신뢰(46항)해야 하며, 지상 육체의 생명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기에, 오히려 '제 목숨 살리려는 자는 잃을 것'(마르 8,35)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칭송받는 것입니다(47항).

열 번째,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로마 8,2)을 따라 자신을 내어줌으

로써 온전히 실현될 그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49항).

열한 번째, 그리스도의 '성령의 숨결'입니다. '숨을 거두심'을 통해 생명의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생명을 봉헌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생명의 의미와 완전함에 도달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해 보였지만 '이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던'(마르 15,39) 것입니다(50항).

서두에 인용한 질문은 1990년대 미국의 낙태방지협회가 문답식 캠페인 광고를 낸 것입니다. ①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②는 베토벤, ③은 유명한 성서학자 존 웨슬리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만으로 '알파하게' 계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결에' 시작한 본당의 생명수호담당 봉사활동은 잘 되십니까? 첫술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 우리 흥분이나 실망하지 맙시다. '서투른' 활동은 그렇다 치고, 남들에게 소개하기조차 '낯선' 명칭이지요? 남에게 '미안하게' 걸지요? 이참에 누가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쉬운, 국제적이고 시대적인 감각에 맞는 이름 지어주시면 어떻까요? 생명위원회 명동 사무국에다 제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필자는 약칭 겸 애칭으로 '생·수·봉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 불러보겠습니다. 생수통도 심수봉도 아니고, 생·수·봉 코디네이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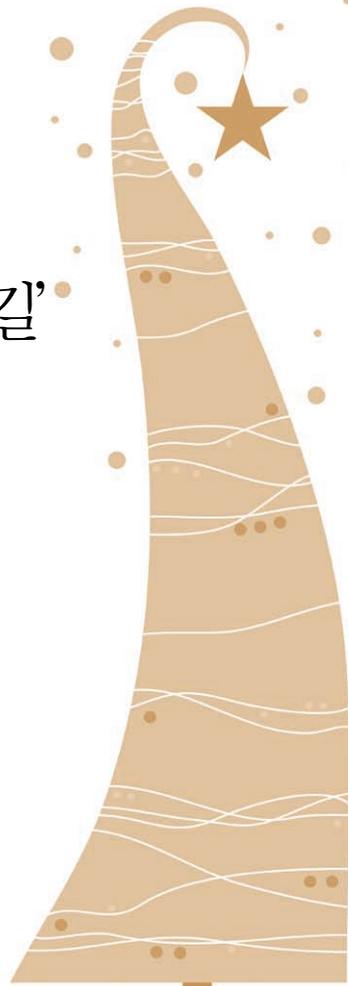
첫 번째 '생·수·봉 코디네이터'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와 함께 두 번째 '생·수·봉 코디네이터'이신 성 요셉께 축복의 전구를 청합니다. 다음에는 회칙의 3장과 4장을 연구·성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소개 작은 용기가 불러온 '희망으로 가는 길'



민수연 안나
서울대학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소 성당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린다. 문 사이로 고개를 슬며시 내민 방문자는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린다.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것은 늘 두려움을 대동한다. 하지만 오늘의 방문자들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욱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오래 전에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떠안고 살아야했던 죄의식 때문이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토록 힘든 삶을 살게 한 것일까? 자기 자신을 비롯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죄의식은 오롯이 혼자 떠맡아야 했던 괴로운 시간. 오늘 그들은 캐케묵은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이곳에 모인다.



작은 용기는 희망의 시작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후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에서 주최하는 낙태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이 열린다. 매달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늘 십여 명 정도의 참가자가 유지되는 데, 낙태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 준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무척 다양하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부터 손자, 손녀들이 있을 만한 연세의 여성들까지. 얼마 전 혹은 오래 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주보 공지를 보고 늘 마음에 걸렸지만 한번 발걸음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희망은 늘 그렇듯 작은 용기와 몸짓에서 시작된다.

희망의 영역에서 묵상하기

소성당에 들어오면 프로그램 시작 전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와준다. 철저한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출석체크도 없고 사전 신청도 받지 않는다. 물품을 준비한 참가자들은 각자 앉고 싶은 자리에 착석한다. 오후 1시 30분이 되면 진행 봉사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구성

- 1부 자신을 되돌아보기, 아기와 의 대화
- 2부 치유예절
- 3부 미 사

진행 봉사자는 참가자들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기도를 바친다. 물론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모습이지만 좀 더 프로그램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복음을 함께 낭독한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0-11)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서는 속죄와 회개를 원하는 참가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어 느새 희망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 되면, 봉사자는 참가자 각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낸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틀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봉사를 하며 낙태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

한 말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내용이다. 상처에 대한 치유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루어진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긴장감을 서서히 풀어준다.

봉사자들과의 시간이 끝나면 수녀님이 진행하는 치유예절이 시작된다. 치유예절은 자신이 낙태를 선택했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다. 앞서 봉사자와 함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아 보인다. 아기와 헤어져야 했던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 더욱 큰 위로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들은 자신이 '돌아온 탕자' 입을 깨닫는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루카 15,21-22)

아버지는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그래서 그를 위해 잔칫상을 차리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품

을 떠났던 자녀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더욱 강하고 따뜻하게 끌어안는다. 참가자들은 낙태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모든 참가자들의 나눔이 끝난 후, 담당 수녀님은 죄의식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 것을 당부한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며 상처를 키워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치유예절이 끝나면, 가정사목부 담당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가 봉헌된다. 미사는 그날 함께한 모든 이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를 완성하는 시간이 된다. 미사의 강론을 통해서 신부님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언급한다. 과거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되라고 격려한다. 강론 후,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안수를 하는 신부님의 모습에는 그들을 참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있다. 서로 끌어안으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기도하는 평화의 인사 또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정한 희망을 원한다면 함께 하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임신부 스스로가 낙태를 원한 경우는 찾아가기 힘들다. 남자친구나 남편, 부모님에 의해 설득당하고 결국 수술대를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수술 후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게 되는 데, 수술했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낙태가 한 번 수술한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주위 사람들은 사회적 냉대가 걱정되어 낙태를 권하지만, 낙태 후 있을 임신부의 정신적 외상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다.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지고 갈 크나큰 상처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때문에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만, 그럴수록 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서 나 자신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다.

낙태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낙태 이후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희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낙태 후 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동행할 것을 권한다. ♡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퀘레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안내

- ◇ 일정 :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 장소 : 서울대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구.계성초교)
- ◇ 문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 02-727-2071

1. 위기임신 전문상담

상담의 대상

1. 임신부 : 기혼자, 미혼자, 청소년 등
2. 임신부의 배우자 / 태아의 부친
3. 낙태경험자
4. 낙태경험자의 가족
5. 낙태관련 종사자

1) 여성생활상담소

- 1) 문의가능 시간 및 연락처
: 월~금 9:30~17:30 ☎ 02-776-8405, 02-776-2516
토/일 10:00~17:00 ☎ 010-9770-7461
- 2) 상담장소 ; 여성생활상담소 상담실(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24호)
- 3) 홈페이지 : www.rcckorea.or.kr

2) 나우리심리상담센터

- 1) 상담운영시간 : 월~금 10:00~18:00 (사전예약시 21:00까지 가능)
- 2) 문의 및 연락처 : ☎ 02-986-4447 / 011-9733-4466
- 3) 상담장소 : 나우리심리상담센터 상담실(성북구 동선동3가 163번지 3층)
- 4) E-mail : ks1467@hanmail.net

2. 장기기증 · 시신기증 ·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 1)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모든 상담 및 신청가능)
☎ 02-3789-3488 www.obos.or.kr
-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시신기증)
☎ 02-2258-7135
- 3)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www.chscb.com
- 제대혈기증 ☎ 02-2258-7458
- 조혈모세포기증 ☎ 02-532-6517

3. 성교육(청소년&청년)

한국 틴스타 ☎ 02-755-2629 www.teenstar.or.kr

4. 자살예방 상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 1599-3079(생명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02-727-2350
www.forlife.or.kr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 02-460-7623
bioethics.cbck.or.kr, prolife.cbck.or.kr(생명운동본부)

* 생명수호기관 : 모자 보호

단체	전화	E-mail, 홈페이지	
미혼모 시설	마음자리	02-2691-4365	momjari@naver.com
	새싹들의 집	031-457-4383	saessach@hanmail.net
	생명의 집	031-334-7168	smyh119@hanmail.net
	인천 자모원	032-772-0071	http://injamo.or.kr injamo2000@hanmail.net
	마리아의 집	033-262-4617	www.maryhome.or.kr
	대전 자모원	042-934-6934	jamowwon-tj@hanamail.net
	자모원	043-212-0437	www.jamowon.or.kr jamowon0@kornet.net
	마리아 모성원	051-253-7543	www.marymosungwon.or.kr mosungwon@hanmail.net
	성모의 집	061-279-8004	sm2010@hanmail.net
	미혼모자 공동 생활시설	함께 크는 집	02-855-0370
스텔라의 집		032-864-0055	srvalentina@hanmail.net
모니카의 집		032-832-8075	susanna2006@hanmail.net
요셉의 집		033-242-4617	mather-baby@daum.net
마리아 모성의 집		051-255-7543	mosungeuijip@naver.com
생명터	055-244-1784	ngo0720@hanmail.net	

입양원	성가정 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9-15 www.holyfcac.or.kr, hfc@holyfcac.or.kr 02-764-4741~3, FAX. 02-764-4746
	꽃동네 천사의 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043-879-0285

제2회 청년생명피정 (성·생명·사랑의 길)

- 일시 : 10/1(토) 오후7:00 ~ 3(일) 오후4:00
- 장소 : 살레시오 관구관(신길6동)
- 내용 : 몸,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언어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을 중심으로)
- 접수 :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www.forlife.or.kr
- 회비 : 5만원 / 마감 : 9월 24일(금)
- 문의 : ☎ (02) 727-2351, forlife@catholic.or.kr

청년과 젊은 부부를 위한 <성·생명·사랑 학교> 3기 모집

- 기간 : 10/11(월) ~ 12/13(월) 총 10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7:00 ~ 9:00
- 장소 : 교구청별관 3층 회의실
- 회비 : 2만원 / 마감 : 10월 4일(월)
- 문의 : ☎ (02) 727-2351, forlife@catholic.or.kr

제10차 교회문헌읽기모임

- 일시 : 10월 7일~21일 매주(목) 오후4시~5시30분
- 장소 : 명동성당 옆 교구청별관 3층 회의실
- 주제 :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헌장』(1995)
- 회비 : 교재비 (당일구입가능)
- 문의 : ☎ (02) 727-2352

교황 베네딕도16세와 함께하는
'태어나는 모든 인간생명을 위한 밤기도'

- 일시 :**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저녁기도 시간
대상 :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
취지 :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명을 옹호해야 하는 교회임무를 새롭게 인식하는 동시에 온 인류의 기도소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닿아 모든 인간생명이 사랑받을 수 있게 하려함
비고 : 주교회의가 기도와 예식을 각 교구에 배포예정.

제18차 정기학술세미나

- 일시 : 9월 30일(목) 오후 7시 ~ 9시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주제 :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와 가톨릭교회의 역할'
- 1부 주제발표 : 한국의 미혼모 실태와 정부의 정책방향
- 2부 사례발표 : 가톨릭교회 내 미혼모 지원사업
- 문의 : ☎ (02) 727-2350

제3회 생명수호주일 및 생명위원회 설립 제5주년 기념 '생명미사'

- 일시 : 12월 5일(일) 낮 12시
- 장소 : 명동대성당
- 내용 : 생명미사 및 제5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 발표

가족관계 프로그램

* 주최 : 서울대학교 가정사목부

1) 건강한 출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태교교실>

- 대 상 : 임신 4개월 이상의 부부
- 기 간 : 3주간 토요일
- 일 시 : 9/4 ~ 18, 11/13 ~ 27 오후2시 ~ 5시
- 장 소 :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참가비 : 부부 당 10만원 (전화 신청 후 입금)
- 문 의 : ☎ (02) 727-2072

2) 낙태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월레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 상 : 낙태상처에 대한 영적치유를 원하는 분
- 기 간 : 월 1회
- 일 시 :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총 4회)
- 장 소 :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 준비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 (02) 727-2071

생명의 신비기금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모든 가치에 우선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신비기금은 ?

- 배아, 태아, 말기환자 등 소외되기 쉬운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명수호 활동하는 곳에 지원합니다.
- 올바른 생명가치관을 정립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학술 및 교육활동에 지원합니다.
-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출판 및 문화행사에 지원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 생명위원회 활동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생명관련 문화 행사와 교육에 초대합니다.
- 설립기념 생명미사 때 후원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후원방법

- 정기 기부계좌 자동이체(후원신청서 작성)
- 후원금 문의 : 02-727-2353
- 무통장,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601-046898 예금주 : (재)천주교서울대학교 유지재단 생명위원회

- 생명수호를 위한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조에 의거 법인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